

지역 소식 통

고창사랑상품권 10월

한달 최대 20% 특별할인

고창군이 추석을 맞아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특별할인은 △상품권 구매 시 10% 선할인 △고창사랑카드 결제 시 10% 캐시백 적립을 통해 최대 2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월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 군민들의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품권 구매 시 10%(1만 원) 선할인을 적용받아 9만원에 구매하고, 이후 고창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가 캐시백으로 적립돼 실질적으로 최대 20%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선할인(10%)이 적용된 금액은 캐시백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추석 명절 특별 할인을 통해 군민들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재산세 등 지방세 15일까지 납부기간 연장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마감되는 모든 세목의 납부 기간이 10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연장 적용 대상에는 9월 30일이 납부 마감일인 정기본 재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신고 세목도 포함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표준 지방세 시스템은 29일 월요일 오전 9시 기준, 대부분의 기능이 복구되어 정상 운영 중이지만 중앙 연계 시스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스마트 위택스 앱(모바일) 이용은 여전히 제한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신거래정보시스템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부안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추석 연휴 8개 분야 종합대책 가동

정읍시, 시민·귀성객 안전 최우선

정읍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7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5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8개 분야에 걸친 종합상황반을 본격 운영한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재난·재해, 산불방지, 의료·방역, 물가 안정, 교통, 생활환경,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고를 예방하고, 연휴 기간 중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특히 전기·가스·화재 등 생활 밀접형 안전사고와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재난·재해 대책반과 가축전염병 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여기에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연휴 기간 중 비상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해 진료 서비스가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했다. 관련 정보는 정읍시청·보건소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한다.

민생경제 지원에도 무게를 실었다. 시는 정읍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보다 늘려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할인율도 15%로 상향해 명절 소비 진작에 나선다. 또 추석 전 농민 공익수

당을 지금에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 행사와 편의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진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생활환경 관리에도 철저히 대응한다. 생활쓰레기는 5일과 6일(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수거되며, 생활환경대책반과 상하수도대책반이 상시 운영돼 민원에 신속히 대응한다. 하수도 막힘이나 상수도 누수 등 갑작스러운 불편 상황이 발생해도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교통 분야에서도 귀성객 편의를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시는 정읍역, 버스터미널, 샘고을시장 등 혼잡 예상 지점에 교통지도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교통대책반을 운영해 정체 해소에 나선다. 또한 유료 공영주차장 3070면을 무료 개방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인구위기 극복 · 생활인구 확대 정책 강화해야”

권익현 부안군수, 10월 중 연석회의서 추석연휴 군민 안전 관리 · 농촌 활력 정책 추진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30일 열린 10월 중 연석회의에서 인구 감소 대응, 농촌 활력 제고, 분기별 성과 관리, 추석 연휴 대비 안전대책, 행정전산망 화재 사고 대응 점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군정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모두의 행복농촌프로젝트’와 관련해 부안군은 농촌을 일터·삶터·쉼터로 전환

하는 정책 기조에 맞춰 농특산물 미식 산업 개발과 웰니스 체험형 관광 등 지역특화 산업을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농촌이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일터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활력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전 부서에 신규 과제 발굴과 중앙정부 정책 연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주민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전북도의 ‘전북사랑도민 제도’와 함께 부안군은 자체적으로 ‘부안사랑도민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출생인구와 관광객이

지역을 찾고 소비와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권 군수는 “관계인구 확대 정책은 지방소멸을 막는 핵심 대응책”이라며 제도 홍보와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올 한 해 남은 기간을 군정 성과의 가시화와 내년도 도약의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며 예산 집행과 추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곧 내년도 예산 확보와 군정 발전의 발판이 된다”며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세계유산 고창갯벌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선정

고창군이 내년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서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과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2개 분야, 6개 사업에 선정되어 총 4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고창갯벌은 ‘홍보지원’과 ‘활용프로그램’ 모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은 5년 연속 선정이라는 기록을 쓰면서,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도 역시 3년 연속 선정,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은 철새 탐조대회 ‘고창갯벌 비버드데이’를 비롯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고창갯벌 세계유산화교’, 갯벌의 가치를 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고창갯벌 세계유산 OUV 공감 콘서트’로 구성된다.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은 탐조 문화 확산을 위한 탐조바람화 ‘고창갯벌 버드워치스데이(Bird Watcher’s Day)’, 갯벌의 소리와 풍경을 함께 즐기는 ‘고창갯벌 사운드 워킹(Sound Walking)’, 캠핑과 탐조를 결합해 정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고창갯벌 청년 캠프’로 구성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특정세력 군정 발목잡기 그만해야”

고창군, “민선 8기 핵심사업들 투명한 절차 따라 정상 추진”

고창군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명절을 앞두고 특정세력의 군정 흠집대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민선 8기 핵심사업들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세력들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군정 핵심사업들의 이수화를 위해 SNS상에서 낮뜨거운 비방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민 피로도 가중과 행정력 낭비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고창군은 먼저, 고창종합테마파크에 대해 “갯벌 훼손 논란은, 현장도 가보지 않은 이들의 억측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해당 부지는 10여년 전 염전으로 사용되다가 버려진 곳으로 이미 육지화 되어 있던 곳이다.

흔히 생각하는 질퍽한 습지하곤 거리가 멀고, 세계자연유산 지역에도 벗어나 있다.

부지 매입은 군민의 대의 기관인 고

창군회의의 승인을 얻어 진행됐고, 개발방향 역시 행정, 의회,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관추진위원회에서 공유되고, 언론보도를 통해 상세히 알려졌다.

15곳의 염전 중에서 7곳의 염전은 기존대로 소금생산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체류형 관광객이 몰려들면 소금생산과 가공, 체험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또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진 통일교 논란과 용평리조트의 부지와 운영은 전혀 관계가 없다.

앞서 심원면주민자치위원회와 체육청년회, 새마을부녀회 등 심원면 17개 사회단체는 9월15일 고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리조트와 골프장 건설은 심원면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업”이라며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국가문화유산 토지 지목 변경 추진

정읍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 소유 토지 15필지, 6,946㎡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하며 역사적 품격 회복에 나섰다.

무성서원은 지난 1968년 12월 19일 사적 제166호로 지정됐으나 토지 지목은 당시와 동일하게 전, 대, 도로, 종교용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했고, 7월에는 무성서원 유림과 지목 변경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무성서원 과거 흑백사진 3장과 1968년 12월 문화공보부가 작성한

사적 지정 문서를 무성서원에 전달했다. 더불어 관련 연구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며 민관이 힘을 모았다. 이러한 협업의 성과로 무성서원 유림의 지목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번에 사적지로 공식 변경됐다.

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올해 연말까지 은선리 삼층석탑(보물 제167호), 파향정(보물 제289호), 천곡사지 칠층석탑(보물 제309호), 김명관 고택(국가민속문화유산 제26호) 등 시 소유 토지 위 국가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사적지’ 지목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추석 대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총력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발생 시기가 빨라 귀성객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와 겹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24시간 가축전염병 신고 접수와 방역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 2인 1

개 반 체제로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며, 기존 1개소였던 거점소독시설도 2개소로 확대했다. 통제초소 6개소도 함께 운영해 가축과 차량의 외부 전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추석 명절 전후인 10월 2일과 10월 10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산농가와 관련 시설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동방제단 차량 7대와 시 자체 소독 장비 3대를 활용해 철새 도래지와 가축 밀집 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